

“아벨의 제사”

히브리서 11:4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 일 것입니다. 선교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며 구제와 헌신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죽어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충만해 지고, 예배를 통해 은혜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란, 성령의 기름부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 장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 11:4)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제사(예배)를 통해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드렸던 예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1.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즉,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앞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 4:7)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 예배,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12 장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1-2)

로마서는 11 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었고, 12 장부터는 그에 대한 실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천에 대해 설명하는 12 장의 첫 시작이 바로 ‘예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내용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당부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주일에 한 시간 드리는 그 시간과 공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삶 전체가 예배이며,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 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에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에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아벨이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관점이 본인 스스로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나 생각이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나 중심의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자신의 삶의 아무런 성장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 라고 외쳤던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배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배를 통해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것은 그의 삶의 변화를 전혀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이 있지 않고 벰바리에 있을 때,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도록 되어 있는데, 다윗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더 멋있게 보이려고 소가 끄는 수레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고 넘어가는 언약궤를 잡으려는 것을 옷사라는 청년이 잡으려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관점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안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내 감정이나 생각이 예배드리는 것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솔로몬은 예배드림으로 복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정통성 없이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하나님께 일천번제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우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경험했지만, 그의 말년에는 타락의 길로 들어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찌기 두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왕상 11:9)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동시에 예배 때문에 비참한 마지막을 살았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1 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배하는 삶이 무너지게 되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솔로몬을 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리웠던 보호막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소한 것이 치명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요소들이 보호막이 사라지고 나면, 인생 전체가 뒤흔들릴만한 커다란 충격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을 때에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무장해제가 되어 있을 때에는 작고 사소한 것이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는 곧 인생 승리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인생도 회복됩니다.

삶에 문제가 찾아온다면, 그 실마리는 반드시 예배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도 승리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예배에 비중을 두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루의 우선순위를 새벽시간에 두셨습니다. 아무리 분주한 사역 일정속에서도 새벽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밤 문화를 깨뜨려야 합니다.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문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보십시오.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루의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는 언제나 예배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갈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런 예배의 삶으로 인생 승리하는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가인과 아벨은 같이 예배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두가지 이유들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밑줄 부분 참조)
2. 1 번에서 이야기했던 두가지는 '좋은 예배'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예배 잘드렸다' 라고 생각하는 기준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3.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결단하거나 다짐한 부분이 있다면 그 마음도 함께 나누어 봅시다.